

기후변화 시대... '지수형 보험' 인기 급부상

자연재해 따른 경제손실 408조
리스크 관리 필요인식 높아져

객관적 지표에 의해 지급 결정
피해조사 분쟁 줄어 빠른 보상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수형 보험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수형 보험은 객관적 지표(강수량·풍속 등)에 따라 약정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보험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경제적 총 손실은 2800억달러(약 408조184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보험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율인 보장격차도 62%로 확대되면서 재해손실 비용을 헛지(위험회피)하는 방안으로 지수형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평가해 보험금을 산정하지만 지수형 보험은 특정 지표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즉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피해 조사에 따른 분쟁이나 지연이 크게 줄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다.

시장 분석 업체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수형 보험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148억달러(약 21조5754억원)에서 오는 2032년 393억달러(약 57조2915억원)로 연평균 11.5% 성장할 전망이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 필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데이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객관적 지표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는 지수형 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수형 보험은 객관적 지표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보

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지수형 보험은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 위험에 대한 상품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삼성화재는 지난 7일 항공기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해당 특약은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출발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시)까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수형 보험은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인 실손보상원칙 준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표와 발생 손실 간의 인과관계 입증에 곤란하거나 실제 손해액이 불일치할 수 있는 베이스

스 리스크(Basis Risk)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베이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복수의 트리거(Trigger) 설정이나 지급 조건 세분화 같은 정교한 설계 방안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상 원칙에 의한 도덕적 위험 통제는 필요하나 실무적으로 엄격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업성 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보험계약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상품의 단순성이 요구되지 않는 기업성 보험의 경우 복수의 트리거(Trigger) 설정, 지급조건 세분화 등을 통해 베이스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봄밤의 낭만·문화 봄 나이트 뮤지엄

삼성화재는 4월부터 5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봄밤의 낭만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 '2025년 봄 나이트 뮤지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뮤지엄 방문객들이 밤에도 다채로운 체험과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야간 개장은 오는 5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3시간 연장 개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개방 공간은 전시장 1·2층, 야외공원, 야외카페와 쉼터 등이다. 방문객들은 낮과 다른 분위기의 야외 전시 및 조명 아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

비대면 고객 맞춤형 설계 문턱 낮춘 암·뇌심보

롯데손해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FOR ME 아파도 인아파도 암·뇌심보' (암·뇌심보)를 출시했다.

암·뇌심보는 모바일에서 확인한 질병 치료 이력을 서면 심사도 넘기지 않고 모바일에서 고객 맞춤형 플랜을 설계해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질병 치료 이력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됐던 고객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입 기간 내 최신 수술 기법 출시 시 해당 기법을 적용한 치료비까지 보장한다. '암 주요 치료비' 담보 하나만 가입하면 다빈치 로봇 수술, 화학 항암제 치료, 호르몬 약물치료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뇌심보는 2대 질환인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주요 진단 및 치료비를 보장한다.

동양생명

2025 연도대상 시상식 박찬택 명인 '동양대상'

동양생명은 지난 3일 강원도 홍천군 소노비발디파크에서 '2025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설계사(FC)와 영업관리자 총 163명을 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 해 동안 최고의 영업 실적을 거둔 설계사에게 수여되는 '동양대상'은 박찬택(KOA 지점)명인이 차지했다. 박 명인은 지난해 315건의 신계약을 유치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장금선 명예상무(새중앙지점)가 올해에도 '대상'을 수상해 총 11번째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장 명예상무는 2011년부터 매년 연도대상을 수상해왔고 지난해에도 338건의 신계약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주형 기자 gh471@

토허제 보류지 '신반포 메이플자이' 매각가 2배 꺾춤

29가구 매각공고... 20평대가 35억
실거주 의무 없고 전매제한도 없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보류지의 몸값이 뛰고 있다. 작년 초 17억원에 분양했던 '메이플자이' 20평대가 35억원을 최저가로 보류지 매각에 나섰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보류지 29가구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다. 대상은 전용면적 84㎡ 1가구와 59㎡ 28가구 등 총 29가구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3 일대에 들어선 메이플자이는 지하 4층~지상 35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아파트. /안상미 기자

층, 29개동으로 총 3307세대 규모다. 오는 6월 입주할 앞두고 있다. 보류지는 재건축 조합이 소송 등에 대비해 일반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주택이다. 일반

적으로 몇 가구 되지 않지만 메이플자이의 경우 대단지라 보류지도 29가구 나왔다.

매각 방식은 입찰기준가격(최저입찰가) 이상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이다. 입찰은 오는 18일까지며, 개찰은 당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최저입찰가인 기준가는 예상보다 높다. 전용 59㎡는 A와 B타입 모두 35억원, '국민평형'인 84㎡ B4타입 1가구의 최저입찰가는 45억원이다. 모두 4층 이하 저층이다.

보류지는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이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올해 들어 강남권 집값이 상승세를 탄 데다 보류지의 경우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 등이 없는 만큼 가격을 올려도 매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메이플자이는 작년 2월 일반분양을 진행했으며, 청약경쟁률은 최고 3574대 1을 기록했다. 일반분양은 중소형인 전용 43~59㎡만 물량이 나왔으며, 59㎡의 분양가가 A타입 17억4200만원, B타입 17억3300만원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보류지는 실거주 없이 임대 가능하며 전매 제한도 없다"며 "토허제로 실거주만 가능한 상황에서 보면 보류지 입찰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메이플자이는 전용 59㎡ 올해 2월 32층이 32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84㎡는 24층이 지난달 47억원에 실거래가 신고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감원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부채관리·재무관리·노후준비 등
작년 1만4742건 자문서비스 진행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노후준비 등 금융자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1만 5000건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1만4742건의 금융자문서비스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해 8%(1086건) 증가한 수준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를 통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노후준비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담 건수 중 재무 관련 상담은 1만 1993건으로 81.4%를 차지했다. 그 외 금융 관련

단순 상담은 2749건으로 18.6%였다.

주제별로 보면 재무 상담 중 현금흐름 관리 관련 상담이 31%로 가장 많았고, 부채관리(18%), 위험관리(13%), 저축·투자(11.8%), 세금 설계(0.6%)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상담이 3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는 사회초년생 소득·지출 관리 등에 30~40대는 주거 자금과 자녀 교육비 마련, 부채관리 등에, 50대 이후는 연금·노후·은퇴·상속·증여 등에 관심을 보였다.

금감원은 금융자문서비스를 개인 맞춤형 자문 상담과 간단한 금융 관련 문의에 대한 일반상담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자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으로 90여 분간 진행한다. 일반상담은 사전 예약 없이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금감원 홈페이지-금융자문서비스 온라인상담페이지)을 통해 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헤이영 서포터즈 2기 발대식'에서 신한은행 정상형 은행장(가운데)이 서포터즈들과 발대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헤이영 서포터즈 2기 발대식

신한은행은 대학생들 통합 플랫폼 '헤이영 캠퍼스'를 이용하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헤이영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헤이영 캠퍼스'는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대학생 전용 모바일 플랫폼이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대학생 모바일 신분증 기반 금융 연계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수업무로 정식 승인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전국 160여개 대학과 헤

이영 캠퍼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100개 대학에서 전용 앱을 통해 대학생 니즈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기 서포터즈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SNS 콘텐츠 기획 ▲오프라인 행사 참여 ▲캠퍼스 연계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헤이영만의 개성 있는 브랜드 메시지를 직접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